



가정통신문

담당부서: 창진부
전화번호: TEL: 021) 6493-9530
FAX: 021) 6493-9600
홈페이지: <http://skoschool.com>

中國 上海市 閔行區 華漕鎮 聯友路 355號 (郵)201107

2020년 574돌 한글날 기념

상해한국학교의 <新조선어학회>

학부모님들께

선선한 바람이 그 간의 노고를 씻겨주는 듯한 가을, 댁내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본교의 교육활동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아끼지 않으시는 부모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국경절 연휴 이후 10월 9일 한글날을 기념하고자 <2020 新조선어학회>를 조직하였으며 신청한 학생들은 콘텐츠 제작팀과 공연팀으로 나누어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공연과 강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新조선어학회는 일제강점기에 한글을 지키고자 노력하신 조선어학회의 정신을 이어받아 현 시대 한글의 위상과 한글과 관련된 내용을 다양한 형태로 표현하고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한글뿐만 아니라 세계의 다양한 언어를 알아보고 세계화 시대에 세계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식견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연휴를 앞두고 학생들이 제작한 한글날 및 한글, 조선어학회 등에 관한 카드뉴스, 포스터, 시, 워크북 등 다양한 자료를 배포하오니 긴 연휴동안 살펴보시며 유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新조선어학회> 회원

콘텐츠 제작팀			공연팀		
UCC	9학년	김성은, 안종민, 권효진, 도예빈	사회(중등)	9학년	권효진, 이지호
	10학년	성채은, 신예원, 김지수, 오수현, 임나현, 서수빈	퀴즈쇼사회(중등)	9학년	남우진, 강성영, 김다은
	10학년	박혜민, 정세미	사회(고등)	10, 11학년	박민채, 이지원
워크북 제작	10학년	박서운	다양한세계 언어소개	8학년	이지현, 모유정
	11학년	남영서		10학년	김동빈
카드뉴스	10학년	윤정원	사물놀이	8학년	김하늘, 이성재, 강균서, 김지환
	10학년	차민아		9학년	정호운, 박서이, 최재이, 이시연, 이수인
	10학년	이주연, 이영서		10학년	박도현, 성채은, 김도현, 윤채원, 이은주, 박동빈, 주신우
	11학년	박선우		11학년	최유한
	11학년	서자영		8학년	윤장은을
	11학년	정윤서		9학년	전시우
	11학년	송서현		10학년	강민성
그림/포스터	9학년	문성민	역사강연	10학년	박준용
	9학년	남우진		7학년	이지연, 임수리, 김정은, 소현
	10학년	김호찬		8학년	고연진, 김하늘, 홍연, 김세현
	10학년	김가영		9학년	최재이, 김시은, 김하영, 배서진, 남우진, 안현서
	10학년	이지현	노래	8학년	모유정, 문경후
	10학년	하수민		9학년	백초은, 김하영
	10,11학년	김혜빈, 김나현		10학년	남유리
	10,11학년	장원영, 남현주		10학년	오수현, 김나현
	11학년	정가현	연극	8학년	김유원, 추서현
	11학년	김정윤		9학년	김유나, 김도형, 김시은, 이지호, 박주황, 김하영
	11학년	장미림		10학년	이재열, 이준혁, 이유진, 차민아
	11학년	이지원		11학년	임효준, 이윤서, 박은비, 박준용, 공민서, 장현진, 김정연, 박규현, 김지민, 이윤서, 남현주, 박선민
	11학년	김현수	피아노연주	7학년	박성원, 김민주
	11학년	정효재			
시	11학년	윤성빈	찬조출연	10,11학년	오수민, 정윤서, 윤성빈, 이강희, 이영서, 송서현, 한종호, 이주연(느닷독서캠프-보이는라디오)
	11학년	오수민			
맞춤법	11학년	이혜원			

〈新조선어학회〉 콘텐츠 작품 모음

◆ 목 차 ◆

1. 카드뉴스

- ☞ 10학년 차민아
- ☞ 10학년 윤정원
- ☞ 11학년 박선우
- ☞ 11학년 송서현
- ☞ 11학년 서자영
- ☞ 11학년 이영서, 10학년 이주연
- ☞ 11학년 정윤서

2. 포스터 및 그림

- ☞ 9학년 문성민
- ☞ 9학년 남우진
- ☞ 10학년 김호찬
- ☞ 10학년 김나현, 김혜빈
- ☞ 10학년 김가영
- ☞ 10학년 하수민
- ☞ 10학년 이지현
- ☞ 11학년 김정윤
- ☞ 11학년 정효재
- ☞ 11학년 김현수
- ☞ 11학년 정가현
- ☞ 11학년 이지원
- ☞ 11학년 남현주, 장원영
- ☞ 11학년 장미림

3. 시

- ☞ 11학년 오수민
- ☞ 11학년 윤성빈

4. 워크북

- ☞ 10학년 박서운
- ☞ 11학년 남영서

5. 맞춤법 알쏭달쏭 우리말

- ☞ 11학년 이해원

1. 카드뉴스

☞ 10학년 차민아: 한글날의 역사에 대해서

“ 한글날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자



“
한글날 기념식은 1926년에
처음으로 거행되었습니다.
이 해는 1446년 한글이 반포된 이후
8회갑(480돌)이 되는 해였는데,
이 기념식은 조선어연구회와
신민사의 공동 주최로 성대하게
거행되었습니다.



“
그런데 1926년에 기념식을 거행한
날은 10월 9일이 아니라 11월 4일이었
습니다. 왜냐하면 이 날이 음력으로 9월
29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음력 9월에
『훈민정음』을 책자로 완성했다는 실
록의 기록에 근거하여 9월 29일을 반포
한 날로 보고 기념식을 거행한 것입니
다.



“
한글날 기념식을 거행하는 중
이 날을 부를 명칭이 있어야 하겠다는
의논이 나왔었고 사람들은 이 날을
'가갸날'로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당시에 한글을 배울 때 '가갸거겨'
하면서 배웠기 때문에
'가갸날'이라고 한 것 입니다.



“
음력 9월 29일에 기념식을 거행했기 때
문에 매년 기념식을 거행하는 날이 바뀌
었습니다. 1931년에는 음력으로 지내는
것이 불편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1446
년 음력 9월 29일이 양력으로 어느 날
에 해당하는가를 계산하게 되었는데, 이렇
게 하여 나온 날이 10월 29일입니다.



“
한글이라는 이름은 1910년대에 주시경
을 중심으로 한 국어 연구가들이
으뜸가는 글, 하나 밖에 없는 글이라는
뜻으로 지어서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그 쓰임이
보편화되지 않았습니다.
가갸날을 한글날로 이름을 바꾼 해는
1928년이었습니다.



“
10월 9일에 기념식을 거행하게 된 것은 일
제 강점기 이후인 1945년부터입니다. 한글
날이 10월 9일로 된 것은 1940년 7월에
발간된 『훈민정음』(해례본)에 나오는 기
록에 의해서 정해졌습니다. 9월 상현의 마
지막 날인 9월 10일을 양력으로 다시 계산
하여 10월 9일이 한글날이 되었습니다.

☞ 10학년 윤정원: 위대한 유산 한글로 세상을 바꾸다



한글날

10월 9일

위대한 유산 한글로 세상을 바꾸다



훈민 정음

말 나 라 니 에 달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뜻을 의미한다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들이 함께 창제한 것으로
우리의 생각과 말을 담을 수 있는 글자이다.

한글날은 언제 생겼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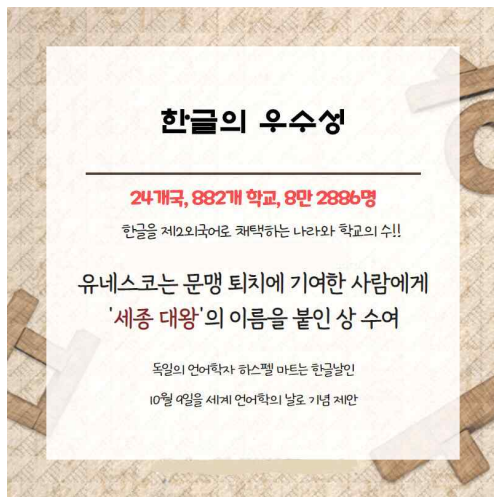
1926년 음력 9월 29일

알제강령에서 중실록 기록대로
음력 9월 29일을 '가갸날'로 지정.

한글의 날

*2년 후 한글밖에 없는 뜻의 '한글날'로 바꿨다.

9.29



한글의 우수성

24개국, 882개 학교, 8만 2886명

한글을 제2외국어로 채택하는 나라와 학교의 수!!

유네스코는 문맹 퇴치에 기여한 사람에게
'세종 대왕'의 이름을 붙인 상 수여

독일의 언어학자 하스펠 마트는 한글날인
10월 9일을 세계 언어학의 날로 기념 제안



알쏭달쏭한 한글말 어떤 것이 맞을까?

우리말 단어퀴즈

'떡볶이' VS '떡볶기'
'헬쓱하다' VS '헬쓱하다'
'길죽길죽' VS '길쭉길쭉'
'서슴치' VS '서슴지'

한글날

우리말을 사랑합시다



한글,
세종대왕의 위대한 유산

10.23 한글날 기념행사에 함께 참여해요!!

☞ 11학년 박선우

594동 한글날 11.25 박선우

한글을 지켜라!
조선어학회 사건(1942)

“근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요,
그 문화를 지탱하는 것은 언어이다.”
국어학자 주시경

주시경 선생의 충음 이후
그 뜻을 이어 한글을 연구하기 위해
1921년, **조선어 연구회**가 조직된다.



조선어연구회는 한글 연구에 힘을 기울이고
1931년 '**조선어학회**'로 이름을 바꾼다.



그 후, 우리말을 지키기 위해
우리말 사전을 편찬하기로 결정하고



1933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시작으로
'조선어대사전' 출판을 준비한다.



그러던 중 한 학생이
기차 안에서 한글말로 대화하다
조선인 경찰관 아스타에게
발각되어 취조를 받는 사건이 발생한다.



취조 결과 민족 의식을 심어준 사람이
서울에서 사전편찬을 하고 있는
교사 정태진임을 파악하고



그를 취조해, 조선어학회가 민족주의 단체로서
독립운동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자백을
받아야만 했다.

이에 일본이 사전편찬 원고와 수십만 장의
한글 자료를 압수, 조선어학회를 강제
해산시키며 발생한

‘조선어학회 사건’



조선어학회 회원과 관련 증인들까지
대규모로 검거하여 고문을 받는다.
그렇게 묻혀버린 우리말 사전



그러나 해방 이후
서울역 창고에서 발견된 원고



마침내 1947년 조선말 큰사전 1권을 간행하고
1957년까지 마지막 6권을 펴내며
46년 만에 조선어 사전 편찬 작업을 마무리한다.

한글의 연구와 보급이 우리 민족 혼을 일깨우고
민족의 강성을 꾀하는 길이라
생각했던 사람들

이들의 피와 땀으로 이뤄낸 결실로
지금도 우리가 쓰고 있는 우리말

한글

11학년 송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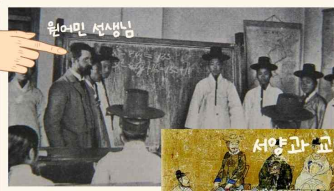
영어를
읽는다



현대보다
좋은
조선시대
영어발음

월드
월드




1800년대 조선은 서양과 교역을 시작하면서 회화를 중심으로 원어민에게 영어를 배웠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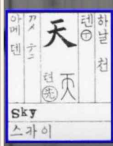
그 당시 출간된 영어 단어책을 살펴 보면 놀라운 사실을 알 수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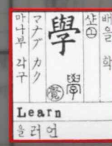
兄弟 (Elder brother)	君 (Ruler)	天 (Sky)	兒 (Child)
弟 (Younger brother)	臣 (Minister)	地 (Earth)	學 (Study)
男 (Male)	夫 (Husband)	父 (Father)	編 (Book)
女 (Female)	婦 (Wife)	母 (Mother)	兒 (Child)



110116 송서현

살펴보면, 영어발음의 세부적인 디테일을 한글로 매우 정확하게 표기했어





L과 R의 발음을 명확하게 구별해주는 것을 알 수 있어



한번 따라 발음해보시요!

조선시대의 뛰어난 발음과 영어실력은 여러 나라들로 부터 인정을 받았어

“조선 사람은 동양에서 가장 뛰어난 어학자로 그 뛰어난 중국어나 일본인은 감히 따르지 못할 것이다.”

-일본인 시노부 준페이 [1901]

조선은 그만큼 영어를 잘했소, 유명했지..





-그런데 말입니다

?? 조선의 후예인 우리는 왜 아직도 외국인 앞에 서면 입이 얼어붙는 걸까? (국제학교 출신인 친구는 제외..)

음악.. 영어.. IT





그 이유는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말하기 중심이었던 교육이 작문과 문법 위주로 바뀌었기 때문이야



참으로 안타깝소..

비록! 우리나라 영어교육이 문법 위주의 교육으로 바뀐 것은 안타깝지만, 우리는 한글이 어떠한 소리도 제대로 표시할 수 있는 우수한 문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어!



한글날

감사합니다!

만세



👉11학년 이영서, 10학년 이주연

한글날 574돌

한글 전파를 위한 노력

110319 이영서
100222 이주연

음식

불고기, 비빔밥

k-드라마

태양의 후예
별에서 온 그대

한글을 접하게된 계기

k-pop

방탄소년단,exo,
블랙핑크

전통문화

탈춤, 한옥
사물놀이

높임법

한글의 어려운 점

받침

동사의 활용

높임법을 어려워 하는 이유

높임법의 종류	정의	예시
주체높임	서술의 주체를 높이는 표현	아버지께서 회사에 가셨다. 할머니께서 진자를 잡수신다.
객체높임	말하는 이가 문장의 객체를 높이는 표현	어머니 좀 뵙자. 이 편지를 선생님께 드려라.
상대높임	듣는 이를 높이거나 낮추는 표현	격식체: 하십시오체, 하오체, 하계체, 해라체 비격식체:해요체,해체

높임법의 종류가 다양하고 복잡

동사의 활용

모른다

모르기까지 모르기를 모르더라
모르는 구나 모르겠더라도 모르지
모르기만 모른데 모르기도 몰랐지
모르거든 모르지만 몰랐네 모르면서
모를까 모르더라도 모르겠다면 모르네
몰라도 몰랐지

상황에 따라 동사가 다양하게 활용된다.

헛갈리는 받침

맞춤법	소리나는 대로 썼을 때
꽃	[꽃]
읽다	[일따]
밟다	[발따]
닭	[닥]
넙다	[넙따]
볶다	[볼따]
노랗다	[노라타]

발음과 표기가 다를때 맞춤법을 헛갈려 한다.

한글의 특징

- 1.어른을 공경하는 문화가 반영 된 다양한 높임표현
2. 다양한 동사
- 3.소리와 표기가 같은 것도 있지만 다른것도 있다.
표음주의(表音主義) 와 표의주의 (表意主義) 원리

전파를 위한 노력

한글을 외국인에게 가르칠때 그들의 관점에서 한국어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 11학년 정윤서

2020 한글날

잘 알려지지 않았던

우리말 속 일제잔재

2020. 10. 9 한글날



1945년 8월 15일

광복 75년을 맞은 올해에도 우리가 사용하는 한글 표현에는 일제 잔재가 남아있습니다. 우리말인 줄만 알았던 말들, 그 이전의 일제시대의 언어. 잘 알려지지 않았던 우리의 한글을 들려드립니다.

01

반장, 부반장 → 회장, 부회장



학교생활을 하면서 익숙해진 '반장과 부반장'이라는 단어들, 사실은 일제 잔재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일제시대에 성적이 우수하며 선생님의 대리자 역할을 한 학생들을 '급장(級長)' 또는 '반장(班長)'이라고 부른 것이 유래된 말입니다.

01

수학여행 → 문화체험활동



'수학여행'은 일본이 조선인 학생들이 일본에 가서 문화를 배우며, 민족정신을 알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 활동이었습니다. 이에 '문화탐방'이나 문화체험활동 등 여러 대체 용어로 바뀌었지만 아직 계속 사용되고 있는 말입니다.

02

간식 → 새참



간식은 사실 일본어 한자어인(間食)에서 비롯된 단어입니다. 간식 대신 새참이나 샐밥이라는 우리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02

다대기 → 다진 양념



'다대기'는 음식에 곁들이는 양념을 뜻합니다. 흔히 우리말이라고 생각되는 다대기는 일본어로 두들긴다는 뜻의 '다타키(たたき)'가 유래된 단어입니다.

03

애매하다 → 모호하다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말인 '애매하다'라는 일본어에서 비롯되었음에도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해 굳어져 버린 표현입니다. '애매모호하다'라는 말이 사전에도 등재되어 있어 혼동을 주지만, '모호하다'가 맞는 표현입니다.

03

구라 → 거짓말



학생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일본어 단어 중 하나인 '구라'는 '속이다'라는 뜻을 가진 일본어 '쿠라마스(嘘ます)'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우리말이 아닌 걸 알지만 사용되는 용어 중 하나로, '거짓말'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2020 한글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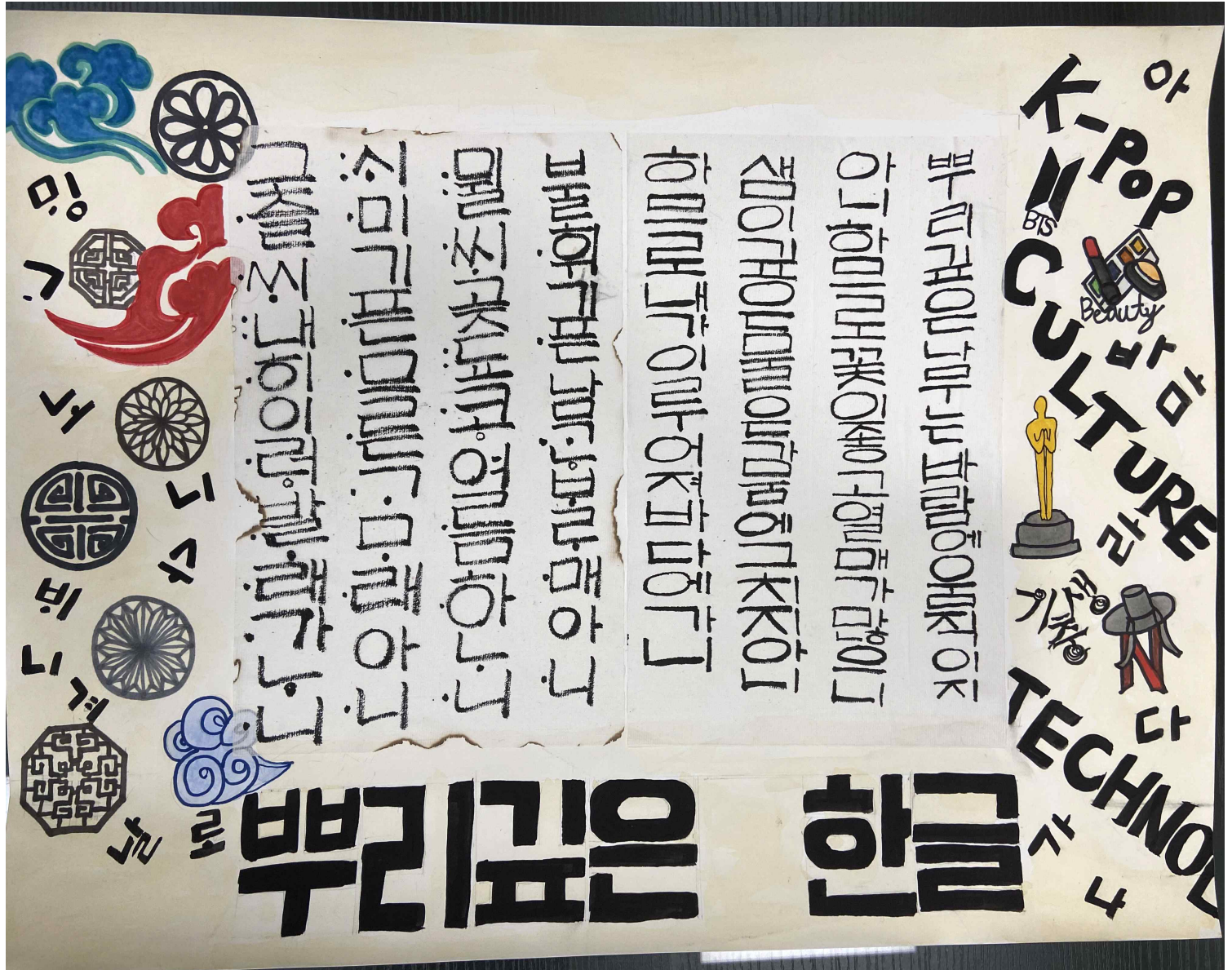
10월9일 한글날

이번 한글날에는 한글 표현의 유래와 역사를 알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말 한글이 아닌 일제 잔재 표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잊지 마세요!

9학년 문성민







혼동하기 쉬운 맞춤법

틀린 표현



맞는 표현

안 되
건들이다
불히다
빈털털이
실증
어떻게
몇 일

안 돼
건드리다
불이다
빈털터리
실증
어떻게
며칠

☞ 10학년 김가영



☞ 10학년 하수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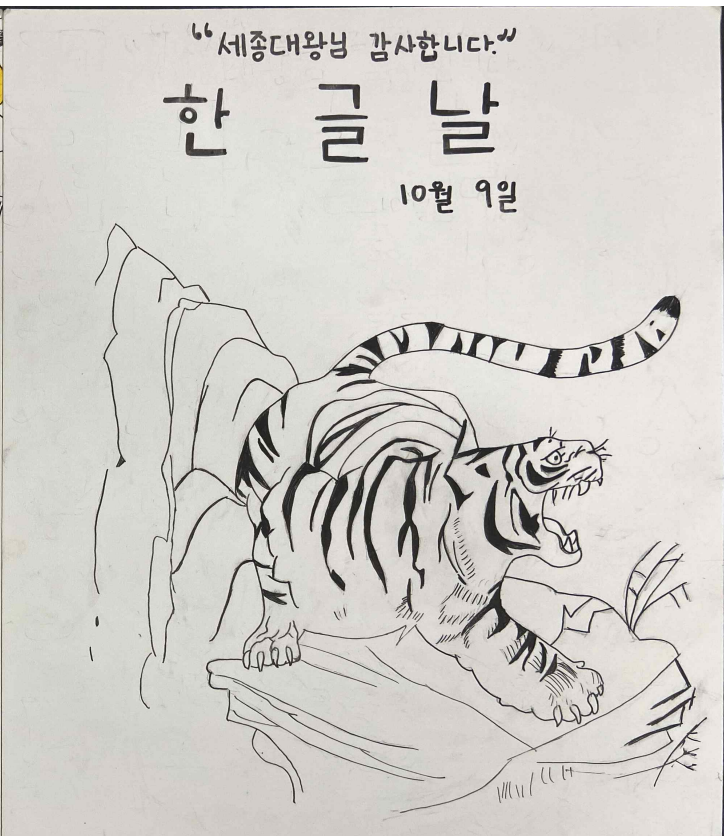
11학년 정가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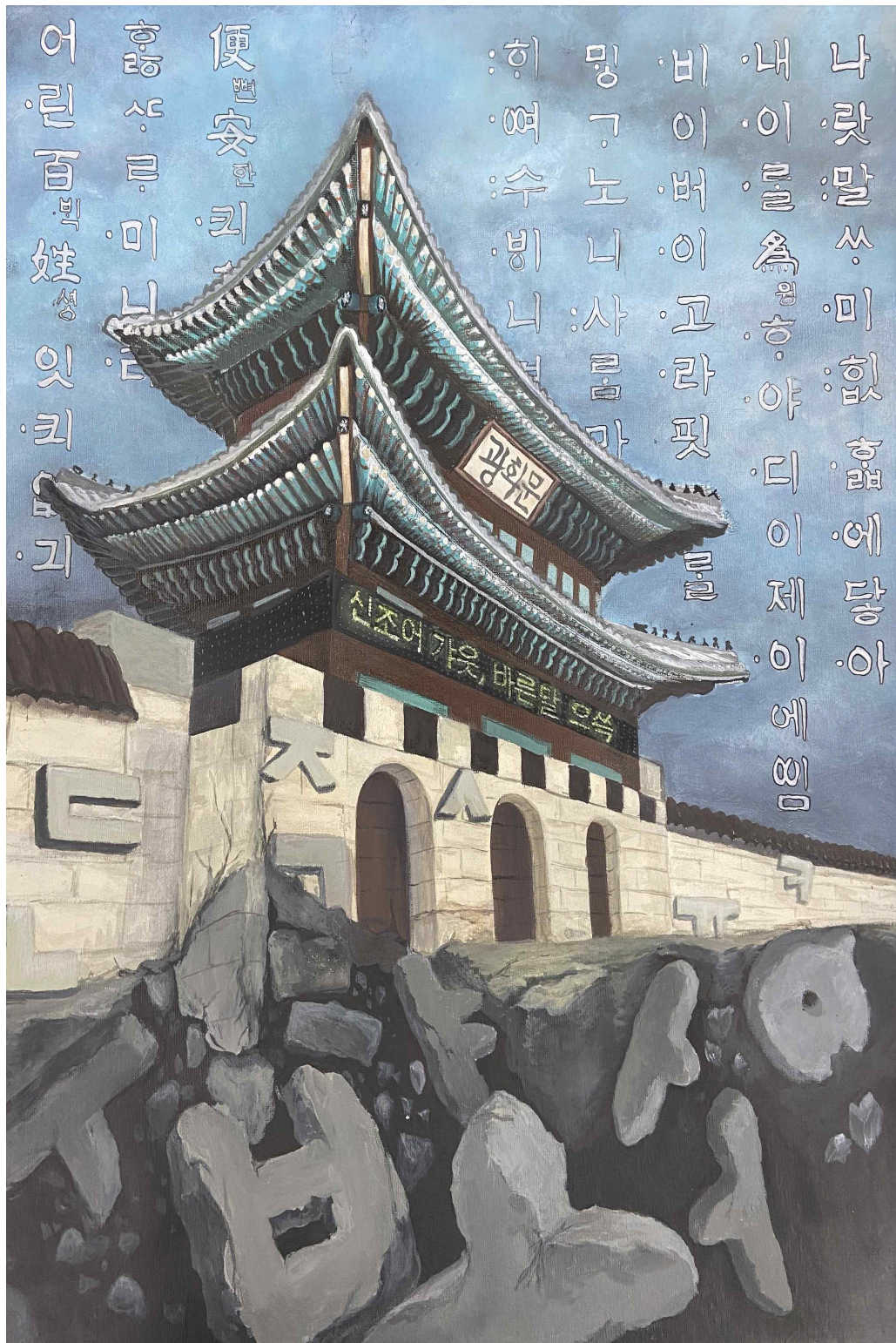
☞ 11학년 이지원



☞ 11학년 남현주, 장원영



☞ 11학년 장미림



3. 시

☞ 11학년 오수민

이그리미

오수민

목을 더듬으면 선연한 아가씨
나는 줄곧 물에서 유행했다.

바다로 떨어지는 사람들의 단어는
당연코 잡을 수 없는 지느러미
나오지 않는 말의 공기방울은
곧 하이얀 물보라로 부서졌다.

바다의 원천으로 헤엄치리
나에게 다시 말할 기회를 달라 빌어보리
생각이 형체로 부서졌다.
그대들을 옹기 하나 소리

이국의 해양에서 너
소리 껍질 내던지고
밀려온 나의 언어를 매만진다.
네 뱀 혀 연 각피에
나의 기억과 삶이 스며들었다

그제서야,
나는 헤엄을 잊고
숨을 죽여 보았다.
아름다웠다.

불길한 예감

110206 윤성빈

어두컴컴한 날에
무구의 자줏빛 구름이
저 경계 너머에서 밀려온다.

서광을 등지고는
자줏빛 구름은
모든 구름들을 서서히 잠식한다.

구름들 사이로
원래 있던 빈틈마저 사라지니
한편의 어둠 와도 같다.

저 멀리에서
불야성 같이 불빛들이 수를 놓고 있다.
진풍경에 도취하여 진정을 경시한
그는 오늘도
실기를 피치 못하였다.

👉 10학년 박서윤

지금 내가 수업중이라 지금은 좀 바빠. 000 연락할게

가. 있따가 나. 이따가 다. 있다가 라. 이다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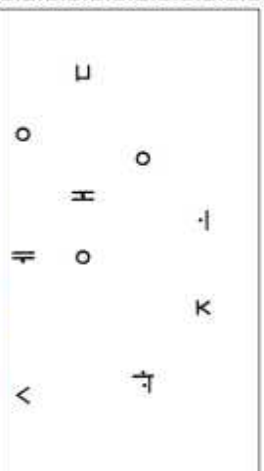


www.cakelab.com

정답: 나. 이따가

8 교한국학교
서영서
제자 110313

_____답:_____



한글을 만든 사람을

한글을 만든 사람

(아름다운 한글을 이용하여)

상해한국학교 7

1 교한국학교

이름:_____



한글날

4,5쪽 정답

4쪽 1. X, 24개이다

2. O

3. O

4. X, '서민들'을 안타깝게 여겨 만들어졌다.

5쪽 1. ④번

2. ②번

3. ⑤번

4. ①번

상해한국학교 6

2 상해한국학교

기 위한 국경일이다.
고, 한글의 우수성을 기리
세상에 퍼낸 것을 기념하
오늘의 한글을 창제해서
곧 한글날이 관련이 있는
한글정음』관

한글날

자르는 선

만음법 지식 확인해보기

1. 'ㅎ'을 제대로 읽은 것은?

①하웃 ②회웃 ③하웁 ④하웁 ⑤하웃

2. 열심히 공부해서 그런지 시험이 참
[]

①시었다 ②쉬었다 ③셨다
④섯었다 ⑤시었다

3. 난 내 친구를 [] 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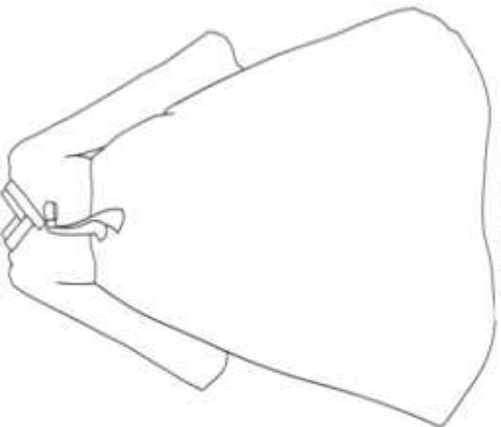
①데리로 ②데릴로 ③되리러
④데리러 ⑤데리러

4. 그 축제에 사람들은 많이 [] 갔다.

①안 ②않 ③안 ④알 ⑤악

상해한국학교 5

3 상해한국학교



한글날을 기념하여
나만의 한글복 만들기

한글날에 관한 지식 확인해보기

1. 현재 한글 맞춤법에 의한 자음
과 모음의 기본 개수는 30개이다.
O/X

2. 『훈민정음』을 반포한 해는
1446년이다. O/X

3. 『훈민정음』은 세종대왕과 여러
집현전 학자들이 창제하였다. O/X

4. 『훈민정음』은 글을 읽지 못하
는 '양반들'을 안타깝게 여겨 만
들어졌다. O/X

상해한국학교 4

5. 맞춤법

☞ 11학년 이혜원

신조선어학회콘텐츠_맞춤법

110517 이혜원

알쏭달쏭 우리말

2020년은 한글 창제 제574주년입니다. 1446년에 창제된 한글은 긴 세월 동안 다듬어져 한국어라는 하나의 언어가 되었습니다. '한글은 쉽지만 한국어는 어렵다'라는 말을 한 번씩은 들어봤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국어를 관통하는 규칙, 국문법. 그중에서도 맞춤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한국인이기에 잘 알 것이라는 방심은 금물! 아래 주어진 맞춤법 퀴즈로 자신의 실력을 테스트해볼까요?

*총 15문제, 오답률 순서이며, 답과 해설은 맨 뒤쪽에 있습니다.

1. '길쭉길쭉'과 '길죽길죽' 어떤 것이 맞는 말? (오답률 27%)

- * 아이는 떡을 길쭉길쭉 썰었다.
- * 아이는 떡을 길죽길죽 썰었다.

2. '삼가 주십시오'와 '삼가해 주십시오' 어떤 것이 맞는 말? (오답률 33%)

- * 버스정류장에서 흡연은 삼가 주십시오.
- * 버스정류장에서 흡연은 삼가해 주십시오.

3. '북어국'과 '북엇국' 어떤 것이 맞는 말? (오답률 35%)

- * 북어국으로 해장이 안될 정도다.
- * 북엇국으로 해장이 안될 정도다.

4. '우유갑'과 '우유곽' 어떤 것이 맞는 말? (오답률 37%)

- * 우유갑으로 재활용품 만들기
- * 우유곽으로 재활용품 만들기

5. '견잡아서'와 '겉잡아서' 어떤 것이 맞는 말? (오답률 42%)

- * 대충 견잡아서 말하지 마세요.
- * 대충 겉잡아서 말하지 마세요.

6. '크구만!'과 '크구먼!' 어떤 것이 맞는 말? (오답률 42%)

- * 새로 장만한 차가 참 크구만!
- * 새로 장만한 차가 참 크구먼!

7. '전세방'과 '전셋방' 어떤 것이 맞는 말? (오답률 43%)

- * 전세방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다.
- * 전셋방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다.

8. '서슴지'와 '서슴치' 어떤 것이 맞는 말? (오답률 45%)

- * 그는 서슴치 않고 비평한다.
- * 그는 서슴지 않고 비평한다.

9. '되레'와 '되려' 어떤 것이 맞는 말? (오답률 47%)

- *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되레 화를 냈다.
- *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되려 화를 냈다.

10. '달디달다'와 '다디달다' 어떤 것이 맞는 말? (오답률 48%)

- * 솜사탕이 달디달다.
- * 솜사탕이 다디달다.

11. '기차간'과 '기차칸' 어떤 것이 맞는 말? (오답률 49%)

- * 낡은 기차간에 앉아 있다
- * 낡은 기차칸에 앉아 있다

12. '스치다'와 '시치다' 어떤 것이 맞는 말? (오답률 52%)

- * 치맛단을 스치다.
- * 치맛단을 시치다.

13. '뒤치다꺼리', '뒤치닥거리', '뒤치닥꺼리' 어떤 것이 맞는 말? (오답률 58%)

- * 애들 뒤치다꺼리에 바쁘다.
- * 애들 뒤치닥거리에 바쁘다.
- * 애들 뒤치닥꺼리에 바쁘다.

14. '즈려밟다'와 '지르밟다' 어떤 것이 맞는 말? (오답률 58%)

- * 흠뻑려진 꽃잎을 즈려밟다.
- * 흠뻑려진 꽃잎을 지르밟다.

15. '퍼래요'와 '퍼레요' 어떤 것이 맞는 말? (오답률 59%)

- * 추워서 입술이 퍼래요.
- * 추워서 입술이 퍼레요.

답 및 해설

1번. 아이는 떡을 길쭉길쭉 썰었다.

여럿이 다 조금 긴 모양을 나타내는 부사는 '길쭉길쭉'입니다.

2번. 버스정류장에서 흡연은 삼가 주십시오.

표준어는 '삼가하다'가 아니고, '삼가다'이며, '삼가다'의 어간 '삼가-' 뒤에 어미 '-아'가 붙으면, '삼가'의 형태로 활용합니다

3번. 북엇국으로 해장이 안될 정도다.

순우리말과 한자어의 합성어에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기 때문에 '북엇국'으로 표기합니다.

4번. 우유갑으로 재활용품 만들기

'우유갑 재활용', '우유갑 모아서 휴지로 바꾸기'처럼 씁니다.

5번. 대중 겉잡아서 말하지 마세요.

'겉으로 보고 대강 짐작하여 헤아리는 것'을 뜻하는 '겉잡다'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6번. 새로 장만한 차가 참 크구먼!

화자가 새롭게 알게 된 사실에 주목함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는 '-구먼'입니다.

7번. 전세방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다.

한자 합성어는 사이시옷을 쓰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8번. 그는 서슴지 않고 비평한다.

'서슴지'의 '서슴-'이 어간으로서 본래 '하'가 없는 말입니다. 따라서 어간 '서슴-'에 어미 '-지'가 붙어 '서슴지'가 되는 것입니다.

9번.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되레 화를 냈다.

'되레 건강 망쳐'처럼 씁니다.

10번. 숨사탕이 다디달다.

'달디달다'는 '다디달다'의 잘못된 표현입니다.

11번. 낡은 기차간에 앉아 있다

한자 합성어는 사이시옷을 쓰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12번. 치맛단을 시치다.

바느질을 할 때, 여러 겹을 맞대어 등성등성 혼다는 뜻인 단어, '시치다'입니다.

13번. 애들 뒤치다꺼리에 바쁘다.

뒤치닥거리'와 '뒤치닥꺼리'는 '뒤치다꺼리'의 잘못된 표현입니다.

14번. 홀뿌려진 꽃잎을 지르밟다.

위에서 내리눌러 밟는 것을 뜻할 때에는 '지르밟다'가 맞는 표현입니다.

15번. 추워서 입술이 퍼레요.

'퍼렇다'의 어간 '퍼렇-' 뒤에 어미 '-어'가 붙으면 '퍼레'가 됩니다.

2020. 09. 30.

상 해 한 국 학 교 장